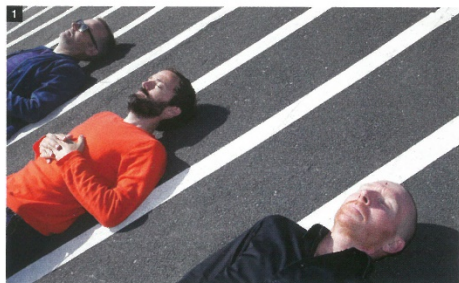


# 우리도 꿈속에서는 계획이 있다

August, 2019 | By Editorial

DESIGN & EXHIBIT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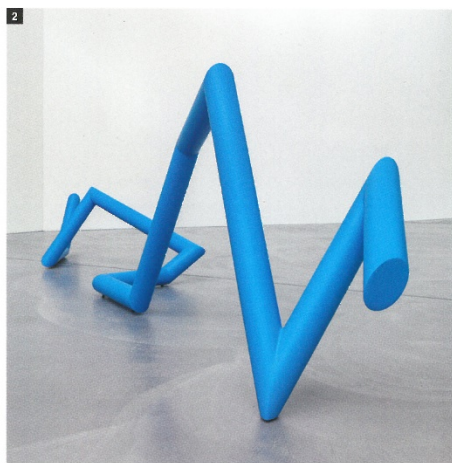


## 우리도 꿈속에서는 계획이 있다

문의 국제갤러리 부산 (051)758-2239 www.kukjogallery.com

국제갤러리 부산에서는 덴마크 출신 3인조 작가그룹 수퍼플렉스(SUPERFLEX)의 개인전을 선보인다. 아콕 핑거(Jakob Fenger), 브외른스테르네 크리스티안센(Bjørnstjerne Christiansen), 라스무스 닐슨(Rasmus Nielsen)으로 구성된 수퍼플렉스는 현대사회 속 작가의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자문하며 글로벌 세계 및 권력 시스템의 성격을 고찰해 왔다. 따라서 작가는 '우리도 꿈속에서는 계획이 있다(In Our Dreams We Have a Plan)'전을 통해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라는 구체적인 사건을 매개 삼아 권력과 자본의 상징성에 대한 내러티브를 엮어낸다. 갤러리 한쪽 벽면을 장식하는 'Bankrupt Banks'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당시 파산을 선언하고 여타 금융 및 정부 기관에 인수된 은행들의 로고를 회화의 형태로 변안한 작업으로, 한때 권위와 자신감의 상징으로 기능하도록 고안되었던 로고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징물로서, 실패한 권력구조의 초상이 되었다. 반대편에는 세계 금융권의 구조조정에 대한 전체적인 연대기가 기다란 검정색 패널 위에 정리되어 있다.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변칙성을 시각화한 또 다른 작업인 'Connect With Me'는 동시대 가장 논쟁적 화폐 종류인 비트코인의 급격한 가치 변동을 보여준다. 그밖에도 조각작품을 통해 기후 변화를 경고하는 'Après Vous, Le Deluge'를 비롯해 다양한 방식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8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진행된다.

수퍼플렉스(SUPERFLEX) 개인전



01\_ SUPERFLEX © Luka Pone  
 02\_ Connect With Me, 2018 © Ben Koechlin  
 03\_ Bankrupt Banks, 2013 © SUPERFLEX  
 04\_ Bankrupt Banks, October 30, 2013, 2013 © Andreas Zimmermann